

등록된 204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준비된 설문지를 가지고 어머니와의 면담과 영유가 기록부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하였으며 자료분석에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X^2$  test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수유는 모유가 62.6%, 인공우유 15.3%, 혼합영양이 22.2%였고 엄마의 연령, 교육정도, 영아의 출생순위 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아의 이유식을 하고 있는 경우는 41.4% 이유를 하지 않는 영아는 58.9%였고 이유 실시자중 시기는 2~3개월이 4.2%, 4~5개월이 16.8%, 6~7개월이 14.1%, 8개월 이후 6.3%였고 엄마의 연령, 출생순위, 아버지의 직업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엄마의 교육정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학력군보다 비실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1$ ).

3. D. P. T 접종율은 1차 대상자 중 접종율 94.2%, 2차 접종대상자중 접종율 90.1% 3차 접종대상자중 접종율 64.9%였다. 소아마비 접종율은 1차 대상자중 접종율 93.7%, 2차 접종 대상자중 접종율 90.1%, 3차 접종대상자중 접종율 61.7%였다.

D. P. T와 소아마비 예방접종율은 엄마의 연령, 교육정도, 출생순위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영아의 영양에 대한 지도와 예방접종 시기에 대한 보건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특히 산전관리시부터 영아의 영양에 대한 준비가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성장 발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일부 보건소 결핵환자 가족들의 결핵에 대한 지식과 실천에 관한 조사

최신의학 26(6) pp. 173~190, 1983.

조경자

보건소에 등록되어 결핵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결핵관리에 필요한 예방과 치료에 관한 지식, 실천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있는 1개 보건소의 결핵관리실에 등록된 환자중 그중 159명의 환자가족이 응답하였다. 예를 응답자에 대하여 1982년 4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3개월동안 훈련된 면담자가 면담 기록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1. 결핵에 대한 지식의 파악경로 및 제시항

① 결핵에 대한 지식은 주로 가족중 환자를 통해서 얻었다는 군이 37.12%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 간호원의 방문을 통해서는 17.6%였다.

② 가족중 결핵환자가 발생 후에 상담과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40.9%였다.

③ 상담과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다에 응답한 군은 8.7%에 불과했다.

### 2. 예방에 관한 지식과 실천

① 60.4%만이 결핵에 전염병이라고 알고 있었다.

② 객담처리 지식면에서는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가 64.1%였다. 또 객담처리는 소각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군이 30.2%,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는 군이 23.9%였다. 실천면에서는 소각한다는 군이 15.1% 밖에 안되었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34.6%로 가장 높은 빈도였다.

③ 환자와의 접촉관계에 대한 지식면으로 전염병이므로 격리해야 한다는 35.2%를 나타냈다. 실천면에서는 모든 일상생활을 환자와 같이 하고 있다는 군이 85.5%나 되었다.

④ 일반성인에게 흉부검사(X-ray)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지식면을 보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군은 72.3%였고 그 빈도를 알고 있는 군은 28.3%였다. 또 환자 발생전에 흉부검사를 실천한 군은 41.5%였고 가족내 환자 발생 후에 흉부검사 실천도는 58.5%였다. 그리고 어린이의 결핵 감염여부 확인방법중 투버크린 반응검사(tuberculin test)를 알고 있는 군은 43.4%였고 그 실천빈도로 43.4%였다.

⑤ 결핵예방주사 비이시지(B. C. G) 접종에 대한 지식면을 보면 60.4%가 B. C. G 예방주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중 7세이하의 어린이에게 B. C. G 접종의 실천도는 43.4%였다. 또 응답자 중 B. C. G 예방주사의 실천은 29.6%로 지식면에 비하여 실천빈도가 낮았다.

### 3. 치료에 관한 지식

① 치료의 진전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을 흉부검사(X-ray)와 객담 검사라고 응답한 군은 42.1%이고 환자의 증세를 보아서 안다는 21.4%였다.

② 결핵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충분한 기간동안의 약 복용이라고 응답한 군은 66.0%였다.

③ 약의 복용기간에 대해 37.7%가 1년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12.6%만이 2년간이라고 응답했다.

④ 각 응답자의 결핵관리에 있어 예방면과 치료면에 대한 지식, 실천면을 교육정도, 결핵에 대한 인식시기, 현재의 질병상태, 성별, 연령 및 가족관계등 각 변수와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교육변수와 연령에 의해서만 지식과 실천면에 차이를 가져오고 결핵에 대한 인식시기나 질병정도, 가족관계에 따라서는 거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실천면에는 교육변수가 미소한 차이를 보이거나 환자의 결핵에 대한 인식시기나 현재 질병상태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 V. 제 언

1. 일차적으로 결핵환자 가족들이 환자의 결핵에 대한 균검사 소견과 X-ray 검사 소견의 결과 보건소에 등록된 기간, 결핵에 대한 인식시기에 따른 관심도와 이에 따른 지식, 실천도를 높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시청각 교재를 동원한 교육 program 이 운영되어 등록된 환자 가족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안이 모색 되어야 하겠다.

보건간호원의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 가정의 상태를 관찰하여 환자 개개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적합한 보건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환자가족의 결핵 예방 생활을 지도하며 결핵환자 가정을 중심으로 간호사업을 전개하여 결핵사업 전반 간호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보건사업이 계획추진되기 바란다.

3. 주어진 보건소 사업의 활동범위를 최대한의 효율 및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적인 행정조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보건소 보건지도계의 확장이 요망된다.

# 보건간호분야 직무수행 관련요인 분석

춘천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14집, pp. 313~345, 1984.

김 성 실

## 1. 결론

본 연구는 보건분야에서 근무하는 보건간호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건간호직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직무수행능률을 향상시키므로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유지 증진등 보건사업의 기본목표달성에 도움을 주고저 강원도내 보건소 학교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1984년 7월 15일부터 45일간에 보수교육에 참석하였던 보건간호분야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저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는 26세~35세가 66.7%였고 학력은 3년제 졸업자가 80.5% 현직근속기간은 1~3년이 32.7%였으며 현직의 바로 전직은 병원간호직 종사자가 23.3%로 가장 높았으며 총 경력은 6~10년이 36.9%로 가장 높고 이직의 이유는 57.8%가 정사정으로 나타났다.

2. 보건간호업무분야 근무자의 업무의 내용중에 결핵관리사업이 34.6%로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보건진료원은 진료와 상담이 78.9%, 양호교사는 상담을 포함한 간호가 50.0%, 산업장간호사도 상담간호를 33.3%에서 하고 있다

3. 직무수행의 정도는 70% 수행이 56%로 가장 높았고 50% 정도 수행자는 34.6%